

농어촌공사 진주·산청지사, 농지이양 은퇴 직불제 사업 추진

정경규 기자 입력 2024. 2. 15. 08:15

65~79세 고령농업인 대상 최대 10년간 직불금 지급



[진주=뉴시스]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 전경.(사진=뉴시스DB).photo@newsis.com *재판매 및 DB 금지

[진주=뉴시스] 정경규 기자 =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는 2024년부터 고령농업인의 영농 은퇴 이후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‘농지이양 은퇴직불제’를 신규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.

‘농지이양 은퇴직불제’는 고령 농업인(65~79세)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 이양(매도·매도조건부)하는 경우,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.

고령 농업인에게 이양받은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 우선 제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팜 등 미래농업 조성에 활용될 예정이다.

가입 대상은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 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.

이은수 진주산청 지사장은 “농지이양 은퇴직불제 도입을 통해 농업·농촌의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과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지원 확대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☎공감언론 뉴시스 jkgyu@newsis.com

뉴시스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